



GKS 소식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2024 GKS 추억공모전 수상작

2024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추억공모전



대상: 오유나 (바트남 어용다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을 위한 글짓기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으로서 건국대학교에서 수학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주제로 여러 친구들이 가지 각색의 경험을 공유해주었는데요. 학위과정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한글로 열심히 작성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앞으로도 건국대학교에서 따뜻한 기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린 시절 4년 동안 한국에서 지냈던 경험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과 친숙함을 남겼습니다. 이후 몽골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며 소동물 수의사로서의 꿈을 키웠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건국대학교 수의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큰 기쁨과 함께 기대를 안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소동물 수의학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성과 지식을 넓히고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몽골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소동물 의료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 몽골의 수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배운 것들이 몽골의 소동물 수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소동물 수의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배울 수 있어 학문적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대학원 생활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교수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문을 넘어선 열정을 가지신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생활은 제게 큰 즐거움이자 안도감을 줍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학우들과의 대화,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문화와 언어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의 3개월은 제 꿈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학습을 통해 소동물 수의사로서의 지식과 실력을 다져가며, 몽골 수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은 유학생활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더욱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문화교류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하기 : TRE 프로그램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이번 12월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심리센터와 함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 TRE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개인의 스트레스 척도를 진단하는 방법과 'TRE'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학생들 간 실습을 통해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TRE 팀별 실습 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학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활발한 만남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GKS 소식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2024 GKS 추억공모전 공모작

이번 가을에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 평생을 저를 키우느라 애쓰신 어머니께 아름다운 건국대학교 캠퍼스를 보여드리니 가슴이 뭉클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호숫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추억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으로서 처음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모국어에서의 학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교수님의 강의 내용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교수님께서 제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칭찬은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에서 만난 반 친구들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큰 이유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만나 한국어로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루에서 온 나오미입니다. 작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1년 동안 어학원에서 배웠는데, 그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문화 교류도 하고, 제 고향인 페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실 페루는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ㅎㅎㅎ.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매 수업이 즐거웠고, 한국어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만, 1년 만에 한국어를 꽤 잘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지원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8월부터 환경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인데, 수업이 모두 한국어로 진행돼서 어렵긴 하지만, 화학과 물리학의 새로운 용어들을 한국어로 외우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전공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 교수님들과 한국 친구들이 배려해 주시길 하지만, 사실 가끔은 영어로 이야기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한국어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ㅎㅎㅎ. 언젠가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00%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께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국에서 만난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한 잊지 못할 경험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연구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밤 새운 날이었어요. 저희는 과제를 같이 해야 했는데 마감기한이 급박해서 연구실에서 3시까지 과제를 같이 했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 날 덕분에 연구실의 선생님들과 조금 더 친해졌고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과제 마무리해서 정말 기뻐요.

